

랜덤은 없다 Nothing is Random

“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 문장은 은유처럼 들리지만 사실에 가깝다. 우리가 통과해온 시간의 대부분은 사라지지만, 어떤 장면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남는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순간, 이유 없이 행복했던 오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여전히 오늘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장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몇 개의 순간인지도 모른다.

무수한 날들 가운데 왜 하필 그 장면이 남았을까. 그것은 우연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날의 빛과 온도, 당시의 몸과 마음, 그 이전까지 쌓여온 기억과 경험이 서로 겹친 결과일지도 모른다.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던 순간이 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된다.

랜덤 다이버시티라는 이름은 이 역설에서 시작되었다. 무작위로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양성. 그러나 그 하나 하나는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그 이유를 모두 읽을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빨리 하나의 평균으로 환원하지 않으려 한다.

이름이 지우는 것

명명(命名)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지워버린다. ‘슬픔’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믿지만, 어젯밤 당신이 통곡한 슬픔과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슬픔이 정말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언어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나의 이름 아래 모아 우리를 연결하지만, 그 압축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개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다.

랜덤 다이버시티는 지난 5년 동안 그 지점을 바라봐왔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마주하고, 그 순간의 반응을 색과 향, 소리로 변환해 가져갔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 의미를 정해주지 않았다. 이 파랑을 ‘슬픔’이라고 부르는 순간, 한 사람에게만 존재했던 감각이 다시 모두가 아는 평균의 언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넌 것은 답이 아니라 하나의 낯선 감각이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지는 언제나 그 감정을 통과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번 《Color of Emotion》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랜덤 다이버시티의 측정에는 한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 여행의 순간, 혹은 나만이 이유를 알고 있는 장면. 그러나 그 감정은 정말 사진을 바라본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사진을 고르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기억과 감각이 우리를 그 장면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최근 AI와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뇌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인공지능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사이에 시간적·계층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관찰되고 있다.¹ 의미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지나며 형성된다.

그렇다면 감정 역시 하나의 점이 아니라 궤적일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슬프다’, ‘기쁘다’와 같은 상태로 부르지만, 어떤 감정도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시작해 머물고, 흔들리고, 다른 기억과 만나고, 긴 시간을 통과한 끝에 지금의 감각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감정인가?”가 아니라 **“이 감정은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이다. 이름은 공유될 수 있지만, 그 이름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는 한 사람의 것이다.

기술이 나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판단을 기술에 맡기고 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어디로 갈지, 어떤 문장을 쓸지. 그리고 이제 기술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까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기술의 설명이 틀릴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설명이 점점 더 정확하고 그럴듯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보다 외부의 해석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묻기보다 기계에게 먼저 물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랜덤 다이버시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는 뇌파와 시신경의 반응을 측정하고, 수많은 신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을 찾는다. 그러나 기술을 인간보다 정확한 해석자로 세우지는 않는다. **기술은 측정하지만, 의미를 결정하지 않는다.**

시는 하나의 반응이 다른 반응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렸는지, 왜 그 장면이 아직도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기계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잔여가 아니다. 애초에 단 한 번뿐이었기에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순간 그 자체다. 언젠가 기술이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기억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지, 한 감각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남는다. 기술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기술과 결합한 뒤에도 다시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이다.

평균이 아니라 차이를 보존하기

오늘날의 시는 수많은 인간의 기록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하고,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점점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² 그런 기술로 오히려 평균에 환원되지 않는 한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랜덤 다이버시티는 그 모순을 피하지 않는다. 좌표계가 정밀해질수록 하나의 점이 다른 점들과 얼마나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지가 더 선명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평균을 만드는 기계로 평균에 저항한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기록은 누군가의 다음 감정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에서 끝내 놓지 못했던 순간들의 아카이브다. 우리가 찾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만 중요했던 장면,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순간, 평균으로 묶는 순간 보이지 않게 되는 차이들이다.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이미지를 본 사람들도 서로 다른 반응과 색을 남겼다. 랜덤 다이버시티는 그 차이를 오퍼나 노이즈로 지우지 않는다. 같은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존하려는 것은 바로 그 차이이다.

한 번뿐인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전시의 끝에서 당신의 기억과 감정은 하나의 색이 되어 작은 병 안에 남는다. 그것은 진단도, 심리적 정답도 아니다. 기억과 몸의 반응, 시간과 감각이 잠시 교차하며 만들어낸 흔적이고, 먼 곳에서 출발한 감정이 도착한 순간이다.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동일한 뇌파를 갖지 않는다. 같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아도 똑같은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색은 나에게 **단 한 번 존재했던 순간에 대한 물질적 기록**이다.

평생을 지탱하는 순간들은 대부분 타인에게는 사소하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언어가 효율성을 위해 압축하면서 덜어낸 것. 통계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 밀어두었던 것.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

Nothing is random.

그 순간이 나에게 남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없더라도, 그 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랜덤 다이버시티는 그 이유를 대신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한 번뿐이었던 순간을 사라지기 전에 물질의 형태로 붙잡아 다시 눈앞에 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색을 마주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을 점점 더 잘 설명하게 되는 시대에도, 자신의 경험에 대한 마지막 해석만큼은 그 경험을 살아낸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순간들을 지니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삶이 분명히 존재했고 빛났다는 것을 남긴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행복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는 그다음의 문제다. 이름은 나중에 붙이든 된다. 붙이지 않아도 된다. ◎

1 Goldstein, A. et al. “Temporal structur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corresponds to layered hierarchy of large language models.” Nature Communications 16, 10529 (2025).

2 Binz, M. et al. “A foundation model to predict and capture human cognition.” Nature 644, 1002–1009 (2025).

Nothing is Random

“We live an entire lifetime on the memory of a moment.”

It sounds like a metaphor, but it is close to fact. Most of the time we pass through disappears, yet some scenes stay for decades. A moment of being loved. An afternoon of happiness with no cause. A scene we can never return to that still moves us. What holds a life together may not be a grand narrative but a few moments like these, small enough to seem like nothing.

Out of all those days, why did that scene remain? It looks like chance. But it may be the result of the light and temperature that day, the state of the body and mind, and everything accumulated before it. A moment that meant nothing to someone standing in the same place becomes another person's memory for life.

The name Random Diversity begins in that paradox: a diversity that appears scattered at random, and yet not one part of it truly is. We simply cannot read all the reasons yet. So we try not to reduce those differences too quickly to a single average.

What a Name Erases

Naming works in two directions. It makes something comprehensible, and it erases whatever the name fails to explain. With the single word “sadness” we believe we have understood each other, but there is no way to know whether the sadness you passed through last night is the sadness left in a childhood memory. Language gathers different experiences under one name and connects us, and in that compression what vanishes first is usually what is most individual.

Random Diversity has been looking at that point for five years. More than 200,000 people have faced their own memories and carried that moment's response away as color, scent, and sound. We have never decided what the result meant. The moment we call this blue “sadness,” a sensation that existed for one person alone returns to the average language everyone knows.

So what we handed over was not an answer but an unfamiliar sensation. What to call it has always been left to the person who lived the feeling.

Where Does a Feeling Come From?

This edition of “Color of Emotion” goes one step further. A measurement begins with a photograph: someone you love, a moment from a trip, a scene whose meaning only you know. But did that feeling arise the instant you looked at it — or were memories already leading you toward that scene before you chose it?

Recent work in AI and neuroscience has observed a possible temporal and hierarchical correspondence between how the brain builds meaning and how a machine processes information.¹ Meaning is not completed in an instant; it forms across stages.

If so, a feeling may be a trajectory rather than a point. We name emotions as states — “sad,” “happy” — but no feeling arrives for no reason. It begins somewhere, lingers, wavers, meets other memories, and passes through time before becoming the sensation we have now.

So this exhibition asks not “What emotion is this?” but “How did this feeling come to me?” A name can be shared. The route to it belongs to one person.

When Technology Starts Explaining You

We hand more and more judgment over to technology: what to watch, what to buy, where to go, what to write. And now it reaches further in, explaining who we are, what we feel, and why we choose as we do.

The problem is not only that these explanations might be wrong. It is that as they grow more accurate, we may start waiting for an outside reading instead of looking inward.

“What am I feeling right now?” If even this question goes to a machine before it goes to ourselves, what have we lost?

This is where Random Diversity uses technology. We measure brainwaves and optic nerve responses, analyze relationships among

countless signals, and look for patterns not visible before. But we do not install it as an interpreter more accurate than the person. Technology measures. It does not decide meaning.

AI can calculate how closely one response resembles others. It cannot know why you thought of that person, or why that scene still matters to you.

What we protect is not the residue a machine has yet to explain. It is the moment itself, irreplaceable because it happened only once. Even if technology one day explains it, what remains is yours: what to call that memory, what to make of a sensation, what it means in your life. We cannot separate ourselves from technology, nor do we need to. What matters is whether, after joining with it, we can return to the place where we feel and judge on our own.

Preserving Difference, Not Averages

There is a contradiction here. Today's AI learns the patterns that repeat across vast records of human behavior and predicts what people will do with growing accuracy.² Using it to look at the one person who cannot be reduced to an average seems contradictory. Random Diversity does not avoid it. We believe that as the coordinate system grows more precise, it becomes clearer how far one point sits from all the others. We use the machine that makes averages to resist the average.

The record of the past five years is not a database for predicting anyone's next emotion. It is an archive of moments people could never let go of. What we look for is not the most universal feeling, but the scene that mattered to one person alone, the moment nothing else could replace, the difference that disappears the instant it is averaged.

Under similar conditions, looking at the same image, people left different responses and different colors. We do not erase those differences as error or noise, because we begin from the fact that the same world does not arrive the same way for everyone. That difference is what we preserve.

What Happens Once Is What Keeps Us Alive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your memory and feeling remain as a single color in a small bottle. It is not a diagnosis or a psychological verdict, but a trace left where memory, the body's response, time, and sensation briefly crossed — the moment a feeling that set out from far away arrived.

From birth to death, a human being never produces the same brainwave twice. Look at the same photograph again and the same moment does not come back. That color is a material record of a moment that existed only once, and only for you.

The moments that hold a life together are mostly trivial to everyone else. To the person who lived them, nothing can take their place. What language set aside for efficiency. What statistics pushed away in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What, to one person, was worth more than anything else.

Nothing is random.

There was some reason that moment stayed with me. Even if the reason cannot be fully explained, the moment existed all the same.

Random Diversity does not interpret that reason for you. What we do is catch a once-only moment in material form before it disappears and set it back in front of you — letting the person who meets that color see again, on their own, what they have held onto.

Even in an age when technology explains human beings better and better, the last interpretation of an experience should belong to the person who lived it.

We live an entire lifetime on the memory of a moment. Even when I am gone, the fact that I carried such moments is what remains — proof that a life was here, and that it shone.

Whether it was love, or happiness, or longing, can wait. Name it later. Or don't. ©

1 Goldstein, A. et al. “Temporal structur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corresponds to layered hierarchy of large language models.” *Nature Communications* 16, 10529 (2025).

2 Binz, M. et al. “A foundation model to predict and capture human cognition.” *Nature* 644, 1002–1009 (2025).

ランダムはない Nothing is Random

「一瞬の記憶で一生を生きていく。」

この一文は比喩のように聞こえるが、事実に近い。通り過ぎた時間の大半は消えていくのに、ある場面は数十年経っても残る。誰かに愛された瞬間、理由もなく幸福だった午後、二度と戻れないのに今日の自分をなお動かしている場面。一人の人生を支えているのは、大きな物語ではなく、こうした些細に見える幾つかの瞬間なのかもしれない。

無数の日々のなかで、なぜその場面が残ったのか。偶然のように見える。しかしその日の光と温度、そのときの身体と心、それまで積み重なってきた記憶と経験が重なった結果なのかもしれない。同じ場所にいた別の人には何でもなかった瞬間が、一人にとっては生涯の記憶になる。

〈Random Diversity〉（略して〈乱多視〉、らんたし。ロゴ表記は〈亂多視〉）という名は、この逆説から始まった。無作為に散らば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多様性。しかしその一つひとつは完全な無作為ではない。私たちがまだその理由をすべて読み取れないだけで。だから私たちは、その差異を一つの平均へ急いで還元しない。

名が消すもの

名づけはつねに二つの方向に働く。何かを理解可能にすると同時に、その名では説明されないものを消してしまう。「悲しみ」という一語で互いの心を分かり合えたと信じるが、昨夜あなたが通り抜けた悲しみと、幼い日の記憶に残る悲しみが同じものかは分らない。言語は異なる経験を一つの名の下に集めて私たちをつなぐが、その圧縮の過程で真っ先に失われるのは、たいてい最も個別的な部分だ。

〈乱多視〉はこの五年間、その地点を見つめてきた。二十万人を超える人々が自分の記憶と向き合い、その瞬間の反応を色と香り、音に変換して持ち帰った。しかし私たちは一度もその意味を定めなかった。この青を「悲しみ」と呼んだ瞬間、一人にだけ存在した感覚が、また誰もが知る平均の言葉へ戻ってしまうからだ。

だから私たちが手渡したのは答えではなく、一つの見知らぬ感覚だった。それを何と呼ぶかは、いつもその感情を通り抜けた人に委ねてきた。

感情はどこから来るのか

今回の《Color of Emotion》は、ここからさらに一步進む。〈乱多視〉の測定には一枚の写真が要る。愛する人、旅の瞬間、あるいは自分だけが理由を知る場面。しかしその感情は、本当に写真を見た瞬間に生まれたのだろうか。写真を選ぶ前から、すでに数多くの記憶と感覚が私たちをその場面へ導いていたのではないか。

近年のAIと神経科学の研究では、人間の脳が意味をつくる過程と、人工知能が情報を処理する過程のあいだに、時間的・階層的な類似が存在する可能性が観察されている。¹ 意味は一瞬で完成するのではなく、いくつもの段階を経て形づくられる。

だとすれば、感情もまた一つの点ではなく軌跡でありうる。私たちは感情を「悲しい」「うれしい」といった状態として呼ぶが、どんな感情も理由なくその場に到着するわけではない。どこかで始まり、留まり、揺れ、別の記憶と出会い、長い時間を通り抜けた末に、いまの感覚になる。

だから今回の展示が問うのは「これはどんな感情か」ではなく、「この感情はどのように私に届いたのか」だ。名は共有されるが、その名に至るまでの経路は一人のものだ。

技術が私を説明し始めるとき

私たちはますます多くの判断を技術に委ねている。何を見るか、何をかうか、どこへ行くか、どんな文を書くか。そしていま技術はさらに内側へ入り込み、自分がどんな人間なのか、いま何を感じているのか、なぜそう選ぶのかまで説明し始める。

問題は、技術の説明が間違っているときだけに起こるのではない。むしろその説明がますます正確でもっともらしくなるとき、私たちは自分の内を覗くよりも、外からの解釈を待つ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

「私はいま何を感じているのか。」この問いさえ自分ではなく機械に先に尋ねるようになったら、私たちは何を失うのだろう。

〈乱多視〉はまさにこの地点で技術を使う。私たちは脳波と視神経の反応を測定し、無数の信号のあいだの関係を分析し、これまで見えなかったパターンを探す。しかし技術を、人間より正確な解釈者として立てはしない。技術は測定する。だが意味を決めはしない。

AIは、一つの反応が他の反応とどれほど似ているかを計算できる。しかしなぜあなたがその人を思い出したのか、なぜその場面がいまもあなたの人生で大切なのかは知り得ない。

私たちが守ろうとするのは、機械がまだ説明できていない残余ではない。そもそも一度きりだったがゆえに何にも代えられない瞬間そのものだ。いつか技術がその瞬間を説明できるようになっても、その記憶を何と呼ぶのか、一つの感覚を何として受け取るのか、その瞬間が自分の人生で何を意味するのかは、なお残る。技術から人間を完全に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し、その必要もない。大切なのは、技術と結びついた後にも、自ら感じて判断する場所へ戻ってこられるかどうかだ。

平均ではなく差異を保存する

今日のAIは膨大な人間の記録のなかから反復するパターンを学習し、人間の行動と選択をますます正確に予測する。² そうした技術で、かえって平均に還元されない一人の人間を見ようというのは矛盾のように見える。〈乱多視〉はその矛盾を避けない。座標系が精密になるほど、一つの点が他の点からどれほど離れた場所にあるかが、より鮮明になると信じているからだ。平均をつくる機械で平均に抗う。

だからこの五年間の記録は、誰かの次の感情を予測するためのデータベースではなく、人々が人生で最後まで手放せなかった瞬間のアーカイブだ。私たちが探しているのは最も普遍的な感情ではない。一人にだけ重要だった場面、他の何にも代えられなかった瞬間、平均としてまとめた途端に見えなくなる差異だ。

似た条件のもとで同じ画像を見た人々も、異なる反応と色を残した。〈乱多視〉はその差異を誤差やノイズとして消さない。同じ世界がすべての人に同じ仕方で届くわけではないという事実から出発するからだ。私たちが保存しようとするのは、まさにその差異だ。

一度きりのものが私たちを生かす

展示の終わりで、あなたの記憶と感情は一つの色となって小さな瓶の中に残る。それは診断でも、心理的な正解でもない。記憶と身体への反応、時間と感覚がしばし交差してできた痕跡であり、遠くから出発した感情が到着した瞬間だ。

人は生まれてから死ぬまで、一度として同じ脳波を持たない。同じ写真をもう一度見ても、同じ瞬間は戻ってこない。その色は、私にとって一度だけ存在した瞬間についての物質的な記録だ。

一生を支える瞬間は、たいてい他人には些細だ。しかし当人にとっては何にも代えられない。言語が効率のために圧縮して削ぎ落としたもの。統計が共通点を探すために脇へ置いたもの。しかし一人にとっては何とも引き換えにできなかったもの。

Nothing is random.

その瞬間が自分に残ったことには、何らかの理由があったはずだ。その理由をすべて説明できなくても、その瞬間が存在したという事実まで消えるわけではない。

〈乱多視〉はその理由を代わりに解釈しない。私たちが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一度きりだった瞬間が消える前に物質の形でつかまえ、もう一度目の前に置き直すことだ。そしてその色と向き合った人が、自分の人生で何を最後まで抱えているのかを、自ら見つけ直せるようにすることだ。

技術が人間をますますよく説明するようになる時代にも、自分の経験についての最後の解釈だけは、その経験を生きた人のものであるべきだ。

人は一瞬の記憶で一生を生きていく。いつか私がこの世にいないとしても、そのような瞬間を抱いて生きてきたという事実は、一人の人生が確かに存在し、輝いていたことを残す。

それが愛だったのか、幸福だったのか、悲しみだったのか、懐かしさだったのかは、その次の問題だ。名前は後でつければいい。つけなくてもいい。◎

1 Goldstein, A. et al. "Temporal structure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corresponds to layered hierarchy of large language models." Nature Communications 16, 10529 (2025).

2 Binz, M. et al. "A foundation model to predict and capture human cognition." Nature 644, 1002–1009 (2025).